

한국문화교류 소식

46호 2022년 12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계절 단상(斷想)



강 성 구

ICKC 고문, 전 MBC 사장, 전 국회의원

봄날은 간다

한국의 시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가요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한 노래가 백설희가 부른 <봄날은 간다>입니다. <봄날은 간다>는 손노원 작사, 박시춘 작곡, 백설희 노래로

녹음되어 한국전쟁 이후 1954년에 새로 등장한 유니버설레코드에서 첫 번째 작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짚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양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작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알뜰한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원래 화가였던 손노원은 6·25 전쟁 때 피난살이 하던 부산 용두산 판잣집에 어머니 사진을 걸어줬다고 합니다. 연분홍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수줍게 웃는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이 판자촌에 불이 나면서 타버렸습니다. 그는 황망한 마음으로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이 노래를 들으면 지나간 봄이 그립고 아련합니다. 그러다 막상 봄이 와서 이 노래를 들으면 봄날이 가는 것에, 꽃잎이 지는 모습에 속절없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청춘을 보낸 이들에게 다시 오는 봄은 이미 봄이 아닙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자던 맹서도 세월 앞에는 속절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봄이 얼마나 남았을까. 계절은 봄이지만 우리의 봄은 오래전 아련한 기억입니다. 누이를 보냈던 신작로 길에 구름이 사라지듯 우리의 삶과 함께 봄날은 갑니다.

배롱나무

입추(立秋)를 앞두고도 가혹하리만치 폭폭 찌는

무더위지만 조롱조롱 맺힌 창가 앞 배롱나무의 화사한 꽃부리가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듯합니다.

보통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지만 배롱나무의 주홍빛 꽃은 100일을 간다하여 일명 목백일홍이라고도 부르죠.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무욕(無慾)의 상징으로, 선비들은 청백리를 떠올리는 나무로 삼았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찰 경내나 서원 등지에 특히 배롱나무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송이가 오래 피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꽃망울이 이어지며 계속 피기 때문에 꽃말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선비들은 그 '한결같음'을 닮고 싶어 했지요. 아무튼 비단처럼 아름답고 유려한 배롱나무 꽃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열 번 백 번을 보고 또 쳐다봐도 전혀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익선관(翼善冠)

오늘은 절기상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입니다. 말복이 남아 있고 한낮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돼 가을이란 말이 무색하지만 오묘하게도 절기의 변화는 엄연합니다.



출처 : Pixabay

요즘 주위에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합니다.
울음이라기보다 짹짹기를 위해 암컷을 부르는 ‘사
랑의 세레나데’죠. 나무 밑 땅속에서 애벌레로 7년
인고의 세월을 보낸 뒤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와 짹
짹기를 하고 생을 마감하며 그 알에서 태어난 애벌
레는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지요.

옛 사람들은 매미를 청렴하고 덕이 많은 곤충으
로 여겨 임금은 매미 날개 모양을 본뜬 익선관(翼善
冠)을 썼습니다. 아, 가을인가? 기다려집니다.

모기 입이 돌아가는 날

계절은 책장을 넘기듯이 어느새 여름에서 가을
로 넘어가는 길목에 다다라 한결 선선함을 느끼니
다. 그렇게 온 세상을 태울 듯하던 무더위가 수그
러들면서 밤에는 벌써 가을의 전령 풀벌레 우는 소
리가 귓전을 울립니다.

자연의 섭리와 곤충들의 뛰어난 선견지명이 정
말 놀랍습니다.

뜨거운 별에 꿈쩍도 않던 뜰 안 상상화 꽃대가 하
나둘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분홍빛 꽃을 활짝 피웠
습니다. 상상화는 꽃과 잎이 같이 피지 않아 서로
그리워하다 결국에 상상병을 얻은 꽃이죠.

다음 주가 ‘모기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處暑)이고
보면 점점 가을색이 완연해지겠지요.

햅쌀밥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 추석 며칠 앞둔 생일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올벼’ 햅쌀밥을 지어주셨습니다.
한 후배가 추석선물로 ‘수라청’ 햅쌀을 보내줘 올라
올 첫 햅쌀밥을 먹으며 이성부의 현대시 <벼>가
생각납니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중략)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중략)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
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넉넉한 함…

이 시에는 알곡은 무거울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진리가 배어있습니다. 벼의 이미지를 통해 이웃의
고통을 내 뭍으로 여기는 이타(利他)의 사랑과 의지
를 전하고 있지요. 탈곡되어 알몸으로 누운 이삭들
처럼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가을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언제나 새롭다

가을비 지나간 숲속에 낙엽이 수북합니다. 나뭇
가지에 매달려 있던 알록달록 잎들은 이제 떨어지
는 일만 남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다음
생을 위한 양분으로 돌아가지요.

겨울이 성큼 찾아오는 길목 가까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고목에 아직 매달려 있는 몇 송이 왕벚꽃
들에 눈길이 갔습니다. 실은 보름 전에 보았던 그
나무 그 꽃들이었습니다. 마치 ‘정지 버튼’이라도
달렸는지 그동안 여러 차례 비바람에도 하나도 변
하지 않은 연분홍 벚꽃이 신기하게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생멸(生滅)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지만 든든한 몸체와 뿌리만 있으면 언제나 ‘새로
움’은 싹트지요. 고목에 보석처럼 매달린 몇 송이 벚
꽃은 분명 온갖 변화 속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끝으로

2023년 새해에는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따뜻함이 넘치는 행복한 웃음을
많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 사우디 리야드에서 3년 만에 갈라 어워즈 개최... 한국 태권도 간판 장준 ‘리야드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강 석 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한국 태권도 간판 장준(한국체대)이 올해 태권도 최강자를 가리는 ‘리야드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장준은 12월 10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대회 남자 58kg급 결승에서 2020 도쿄 올림픽 준결승에서 패배를 안겼던 튀니지의 복병 모하메드 칼힐 젠두비(랭킹 1위)를 라운드점수 2-0(4-3, 4-2)으로 꺾고 올해 최강자로 우뚝 올라섰다.

이로써 장준은 고교생 신분이던 2018년 푸자이라 파이널 우승 이후 4년 만에 파이널 정상에 탈환했다. 개인 통산 그랑프리 파이널 2회 우승, 그랑프리

시리즈 5회 등 그랑프리 총 7회째 우승을 기록했다.

장준은 “우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어 기쁘다. 지난 세계대회에서 아쉽게 결승에서 저 솔직히 많이 힘들었다. 올림픽과 세계대회 같은 중요한 대회에서 내게 패배를 안겼던 선수들을 이번 대회에서 이겨낸 것이 무엇보다 값진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좋은 기운으로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반드시 선발돼 올해 이루지 못한 세계선수권 정상에 탈환하도록 집중하겠다. 또 랭킹 10위권까지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더 집중해 꼭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남녀 4체급씩 총 8체급으로 열린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에 남자부 3체급 4명, 여자부 3체급 3명 총 7명이 초청돼 장준의 금메달 1개와 서건우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가장 부진한 성적을 거둔 여자부는 한 명도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WT는 이날 저녁 ‘2022 WT 갈라 어워즈’를 열고

올해의 남녀 선수 및 지도자·심판·국가협회와 올해의 킥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태권도 부문 올해의 남녀 선수와 코치도 처음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의 남녀 선수는 갈라 어워즈 현장에서 선수와 코치, 심판 투표로 결정한다.

* * *

2022 세계태권도연맹 올해의 남녀 선수로 태국 패니팍 옹파타나키트와 이탈리아 시몬 알레시오가 선정됐다. 두 선수는 올 한 해 가장 빛난 태권도 스타로 인정받았다.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은 12월 10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2022 WT 갈라 어워즈'를 열고 올해의 남녀 선수상을 비롯한 지도자, 심판, 국가, 연맹 등 분야별로 시상했다.

올해의 남자선수는 올 한해 최강자를 가리는 그랑프리 파이널을 우승으로 장식한 한국 간판 장준(한국 체대)과 경쟁한 시몬 알레시오(이탈리아)가 선정됐다.

올해의 여자선수는 한국 간판 이다빈(서울시청) 등과 경쟁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패니팍 옹파타나 키트(태국)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몬 알레시오는 남자 -80kg급 로마 그랑프리



▲ 2022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58kg급에서 우승한 한국 태권도의 간판 장준 선수

파리 그랑프리 이어 이번 리야드 그랑프리 파이널을 휩쓸었다. 패니팍은 지난해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시작으로 파리 그랑프리 와 맨체스터 그랑프리 이어 이날 열린 리야드 그랑프리 파이널을 모두 휩쓸며 여자 최경량급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올해의 남녀 선수는 갈라 어워즈 현장에서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 선수와 코치, 심판 등의 투표로 결정한다.

2014년 시작해 매년 그랑프리 파이널 직후 열

리는 WT 갈라 어워즈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2019년 모스크바 갈라 어워즈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됐다.

ICKC 총재이기도 한 WT 조정원 총재는 “올해는 매우 뜻깊은 한해이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 2년간 정상적인 대회를 열지 못했는데, 올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모든 대회가 열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지도자, 국가협회, 심판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2022 WT 갈라 어워즈' 참석자 및 수상자 기념 촬영. 가운데가 조정원 WT 겸 ICKC 총재.

미소가 아름다운 라오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김 문 영

라오스국제학교 한국어교사

메콩 강이 흐르는
인도차이나반도 내륙에 위치한 라오스!

라오스 사람들은 모국어인 라오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유창하게 하길 원한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예로 국제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채택할 만큼 최근 들어 부쩍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라오스에는 여러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 중 두 곳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교양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나는 그 중 라오스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Laos, ISL)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과의 모든 시

간이 나에게서 큰 보람이고 행복이다.

국제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배우기에 공부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열정은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나도 가르치기가 수월하지가 않지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열정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외국어가 그렇듯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언어를 습득하는 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적절히 이해해야 이들의 한국어가 일취월장한다고 믿기에 한국 문화 활동에 중점을 두어 수업 진행을 하고 있다. 다행히 모든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화활동 수업을 하는 날은 모든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린다.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경험한 수많은 재미있는 일화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한국어에 관심도 없이 수업에 참여하던 학생이 있었다. 이제 겨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단계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평소

보다 수업에 더 열정을 보이는 것을 느꼈다. 한국어 학습을 열심히 하는 학생을 칭찬해 주며 이유를 알아보니,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인 방비엥을 다녀온 후 한국어에 더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수업 시간에만 접하던 한국어가 라오스의 관광지 곳곳에 있는 것을 보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것이다. 몇 년 전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라오스의 방비엥 관광 지역이 소개된 후로, 이곳은 수많은 한국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이후 방비엥 대부분의 간판과 차림표에는 한글이 적혀있고, 노점상조차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곳이

되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부모님께 한국어를 멋지게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 학생은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추석 때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어렸을 적 즐겨먹던 보름달처럼 둥그런 뽕튀기를 준비했다. 추석 보름달을 주제로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반달, 초승달도 만들면서 추석에 대한 설명과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데 모두 즐겁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한국의 과자, 뽕튀기를 알게 되어 이제는 언제나 즐겨먹는 간식



▲ 라오스 국제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모습



▲ 라오스 국제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모습

이 되었다. 소소한 내 어릴 적 추억을 나의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하나로 소개하게 되어 너무 기뻐다.

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이 나와서인지 너무 흥미로워했다.

요즘 라오스는 한국 화장품, 영양제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비타민을 가지고 왔다. 비타민 뒤에 있는 한글 '유한양행'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며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고 있었다. '이웅'은 자음으로 사용할 때 무음이고 받침으로 사용할 때 소리가 난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한 터라 읽을 수는 있는데 뜻이 너무 궁금했던 모양이다. 이 비타민을 만든 회사 이름이라고 했더니 자

이처럼 처음에 한국어에 관심 없던 학생들이 점점 질문이 많아지고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라오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이자 기쁨이 된 것 같다. 이런 우리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단순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낯선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가장 가까이서 알려주는 작은 외교 사절 역할을 하고 싶다.

□□□□□□

2022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2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륜희, 고용규, 구병진, 구철회,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진태, 김창옥, 김형중, 김호일, 김홍식, 노승락, 문경태,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순호, 박원출,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송수식, 양경옥, 유영찬, 유자호,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향구, 이현목, 이효정, 이효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홍미자, 홍성훈, 황경애, (주)동우들, (주)동일고무벨트, (주)로드인터내셔널, (주)루이제, (주)비바다빈치,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양양운수(주), (주)에이젠코어, (주)포스젯한도, (주)포스코, (주)포스코CT, (주)P&H 가나디순,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22일까지 **총액 : 85,980,0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유럽에 한국어·한국문화 알릴 ‘거점세종학당’ 파리서 개원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유럽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맡은 ‘거점세종학당’을 프랑스 파리에 개설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파리 중심부 소재 파리코리 아센터에 들어선 세종학당은 서유럽·남유럽 9개국 21개 세종학당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학당 발굴·교원 재교육·현지 진출 국내기관과의 협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4개국에 244개가 있으며 거점 세종학당은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에 이어 프랑스가 네 번째다. 첫 수강생 모집에 9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현지인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세종학당측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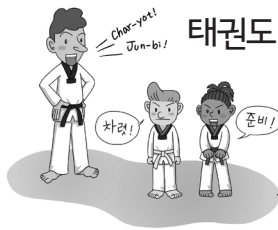
11월 28일 오후(현지시간)에 열린 기념식에는 유대종 주프랑스한국 대사, 이일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현지 정부 관계자 및 교육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에서는 재단의 명사 특강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마리 귀스타브 르클레지오 프랑스 노벨문학상(2008년) 수상작가가 나의 한국, 문학과 평화의 터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2022/11/29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9116200371?section=search>



▲ 프랑스 ‘거점세종학당’ 개원식에서 강연하는 르클레지오



태권도의 ‘디지털 스포츠화’ 첫발을 떼다

세계태권도연맹(WT) 주최 ‘2022 WT 옥타곤다이아몬드 게임’이 지난 12월 16~18일 강원도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 대회는 팔각형 다이아몬드 형태 구조물에서 선수들이 1-1 또는 2-2로 나눠 겨룬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 합의체점방식 심판관 정시스템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기존 격투기보다 고도화한 게이미피케이션 효과 등으로 태권도 경기의 디지털 스포츠화 가능성을 증명했다.

WT는 이번 다이아몬드게임에 간소화한 경기규칙을 마련해 선수와 지도자, 심판 뿐 아니라 태권도를 모르는 이들도 TV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이해하고 시청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 반응도 뜨겁다. 대회와 맞물려 WT 다이아몬드 게임이 전 세계로 홍보, 여러 나라에서 다이아몬드 게임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다.

조정원 WT 총재는 주요 관계자와 다이아몬드 게임의 월드컵 대회 도입, 단독 대회 개최 등을 주제로 견해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구현한 방송중계그래픽과 게이미피케이션 효과는 태권도 경기가 하나의 중계 콘텐츠로 진화할 가능성도 보였다.

[기사 출처] 스포츠서울, 김용일 기자, 2022/12/19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86340?ref=naver>



▲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경기 장면

■ 재능교육·대한태권도협회·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태권도 꿈나무들에게 동물사랑·생명존중 캠페인 진행

ICKC는 재능교육(대표 박종우),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등과 협업해 전국 태권도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동물사랑·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걸맞게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함양하도록 기획됐다.

시낭송대회, 동화구연대회를 개최하며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온 재능교육은, 반려동물사랑 영상공모전, 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전개해 온 ICKC의 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이번 캠페인 참여를 결정하였고 포스터 2만 매, 스티커 25만 매 제작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ICKC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대한태권도협회의 협조를 통해 이 홍보물을 전국 17개 태권도 시도지부로 발송하였고, 순차적으로 전국 1만여 개 도장에 포스터가 게시되고 수련생들에게 스티커가 배부되고 있다.



▲ 동물사랑·생명존중 캠페인 스티커

‘아이들 스스로 동물방위대가 되어 동물의 소중함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지킨다’는 컨셉으로 제작된 이번 포스터와 스티커는 동물은 소중한 가족이며, 함께 살아가는 친구로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았다.

재능교육 박종우 대표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성이 형성되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동물 보호에 관한 교육은 중요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동물사랑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에는 ICKC와 재능교육, 대한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와 디자인 업체 엉뚱상상도 함께 참여했다.

■ ‘2022 태권도 영상 공모전’ 성료··ICKC 강석재 이사 심사위원 맡아

한문화재단(KCF·이사장 김준일 코비그룹 회장)과 스포츠동아가 공동 주최하는 ‘2022 태권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17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열렸다. 본회 ICKC 위호인 이사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강석재 이사 및 정순영, 장정용, 이효진 운영위원도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자리를 빛냈다. 특히 강석재 이사는 이번 공모전의 심사를 맡아 시상식장에서 심사위원 대표로 심사경위 및 소감을 발표하였다.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국기 태권도’를 주제로 내건 이번 공모전 시상은 ▲ K-팝 태권댄스 ▲ 다이내믹 태권도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상의 영예는 북한산, 광화문 등 국내 유명장소를 배경으로 태권도 동작을 우아하고 절도 있게 표현한 작품 ‘JUST KICK IT-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제작한 가온태권도 김광수 씨에게 돌아갔고, 대상 1편(상금 500만 원), 최우수상 4편(각 300만 원), 우수상 4편(각 200만 원), 장려상 11편(각 50만 원) 등 총 20편의 수상작에 총 30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 '2022 태권도 영상 공모전' 참석자 및 수상자 기념 촬영

■ 스리랑카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2 밝은사회클럽(GCS) 국제대회’가 지난 10월 14일 태국 방콕 시암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오후 2시 20분부터 시작된 본 GCS연차대회는 GCS국가본부 활동 보고, GCS방콕평화선언문 채택, ‘ICKC 태권도발전기금’ 전달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오후 5시까지 약 2시간 40분간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조정원 GCS총재가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가 기부한 태권도발전기금을 ICKC 총재 자격으로 이기수 GCS스리랑카 부총재 겸 스리랑카태권도협회 기술위원장에게 전달했다. ICKC는 지금까지 캄보디아 그리고 네팔태권도협회에 ICKC 태권도발전기금을 GCS연차대회에서 전달한 바 있다.



▲ 스리랑카태권도협회에 'ICKC 태권도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관용 前 국회의장
최불암 예술인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운영위원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호진 前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총장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 2015년 파독(派獨) 광부·간호사 헌신 기념을 위한 독일 뮌헨 음악회 개최
- 2017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타슈켄트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 2018년 세계태권도연맹과 저개발 국가 태권도·한국어 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9년 캄보디아, 네팔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 2022년 대한태권도협회(KTA)와 태권도 수련생들의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전국 태권도장 대상 ‘동물사랑·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개최 및 시상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및 시상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KC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동물사랑·생명존중

JEI 재능교육

지켜주자, 우리 스스로!



**동물을 사랑하면
우리모두 행복해요!**

 Taekwondo Animal (태권도 애니멀 TV)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대한태권도협회 **KTA**
KOREA TAEKWONDO ASSOCIATION

 서울특별시수의사회
Seoul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인간사랑

★ **친환경 철강의 시대, 누가 펼치고 있을까?**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철을 만드는 일,
친환경 시대를 준비하는 포스코의 사명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탄소 발생 없이 철을 만들고
그 철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다시 재활용까지-

친환경 철강의 시대, 포스코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Green Tomorrow, **With POSCO**

posco

